

데스크시각

기현호



[오피니언]

당구는 속된 표현으로 머리를 여려단계 굴려야 하는 스포츠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당구에는 기하학과 물리학의 이론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40~60대의 중장년 세대들은 학창시절 거칠하게 삽각할수 풀려간다며, 특별한 놀이문화가 없던 시절 당구장을 즐겨 찾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자장면 시켜먹으면 당내기에는 모두 기도 했지만 허구한 날 둘러거리며 한 가락씩 했던 당구는 언제 접해도 물리지 않는 흥미진진한 놀이였다. 셤법에 능했을까, 고종황제도 당구 200을 쳤다고 하는데 그 재미에 끌려온 용안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선수단 '금빛 약속' 70개

두달전에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네 리가 방한, 한국선수들과 경기를 펼치면서 중년들에게 마련한 추억들을 살기시켜줬다. 당구는 다음달 1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되는 제15회 아시안게임에서 금 4개가 유력한 흥미로운 대결에

서 강한 눈빛을 보여 주었던 완도출신 '얼짱 당구소녀' 차유람(19)이 매달사냥에 나서 또 한번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눈여겨 볼만한 또

AG 노메달에도 박수를

(아시안게임)

다른 종목은 체조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간판스타 양태영(26)의 경기다. 양태영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 평행봉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안톤 노우에 이어 또다시 미국 선수 풀햄에게 금메달을 도둑맞고 눈물을 흘렸던 사나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ABC 등도 당시 "양태영에게서 금메달은 강탈한(robbed) 심판 오류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심을 인정했다. 왕년의 '체조요정' 코마네치도 관점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달랑 데

월 5일 서울아시안게임 결승서 조광래와 변병주의 득점포로 사우디를 격파한뒤 20년 만에 다시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와 3연패를 목표로 내일 결승전이나 다음없는 대만전을 치르는 야구도 금메달을 장담하고 있다. 일본팀은 사회인 야구선수가 주축이다.

이처럼 풍부한 자원과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국선수단이 이번에 내건 '금빛 약속'은 70개이상, 종합 2위다. 70여명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스포츠는 강한 국가, 강한 민족을 증명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역설한바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대회에서 성적을 드높이는 것은 글로벌 시대 정치·경제적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승자우대 문화가 한 사회나 국가의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틀림이 없기에 그들은 국가로부터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

500명은 빈손 귀국할듯

하지만 그들의 뒤편에는 금메달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비뚤어진 1등문화 때문에 은·동메달을 따고도 서려운 선수들이 많다. 메달구도 못하는 선수는 부지기수다. 이번에 참가한 선수는 총 787명, 그렇다면 시상대 한번 오르지 못하고 귀국해야 할 선수는 줄잡아 500명이다. 그들도 지난 몇년동안 한여름 비지땀 흘리고 추운 겨울 지속훈련까지 받으며 금메달리스트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금메달은 언제나 유일하기에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을 뿐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면 500명에게도 박수갈채를 보내야 한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따뜻한 문화가 정착될때 스포츠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사회적 경쟁력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체육부장〉 kih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온펜칼럼

최희동



쓰임새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옹달샘의 물은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유우가 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고 전 총리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행정의 달인' 그에게 늘 따라다닌 수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지역민들이 고 건을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는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행정의 달인'으로 꾀고우연하는 고 건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정치의 달인' 고 건을 원한다. 그런 그가 중도실용주의를 기치로 국민통합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고건은 독인가, 약인가

그런데 고 전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정계개편 방향이 묵히게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DJ와 손을 잡고 이번 대선은 보수로 넘겨주고 차차 기회를 노린다는 말도 있고, YS와 JPK의 회동설, 이희창의 복귀설 등 어辱로 해야 할 분들이 이 기회를 노려 정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다.

참여정부는 아마추어적인 개혁과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더니 전 시작전통제권 논란과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보수수구집단의 결속만 강화시켰고, 신뢰받을 수 없는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의 실태로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켜 이미 정권재창출은 물건이었고, 백 년을 지속하겠다는 당

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처럼의 기회를 또 허송세월로 보낼 것인가?

이러한 상황이기에 국가경쟁능력과 국민통합능력을 견증받은 고 건의 용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고 건이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악이 될 것인가는 우리 지역민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스스로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본다. 얼린우리당으로도 안되고, 민주당으로도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쟁능력과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경륜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사무총장·2006년 6월 수상자〉

온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온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B·B탄 장난감' 자녀들에 경각심 일깨워줬으면

며칠 전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장난감 총알에 얼굴을 맞았다는 것이다. 그 학생을 찾아 와 위험하게 사람 얼굴을 향해 총을 쐬느냐고 질책했더니 그 아이는 "애가 겁방져서..."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고 그 학생이 자주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을 다른 학생들에게 들어 아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부모 대신 딸이 전화를 받아 "엄마가 주 무시는데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했다. 그 낭 너머가면 또 다른 학생들이 다치겠다 싶

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 집으로 향하였다. 아이 엄마를 깨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이 엄마가 "어린 애들끼리 그런걸 왜 남의집까지 찾아와 법석이냐"는 게 아닌가.

이게 어디 단순히 놀다가 생긴 그냥 일인가. 그 총알은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이다. 지금도 그 총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이를 방지하고 주의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다니, 씁쓸했다.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지난 22일 한미 FTA 협상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광주시 청사 유리창 340장을 깨뜨리는 등 4억여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명의 전·의경들을 다치게 한 폭력 시위 현장을 지켜봤던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지정연 경위입니다.

당시 시위대로부터 날아오는 불騰이와 휘두르는 각목에 맞지 않으려고 방패 속에 머리를 숙인 채 떨고 있던 전·의경들의 눈을 혹시 보셨나요?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의 물풀에 머리를 맞고 땅바닥에 나뒹굴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어요. 꽤 허리 쓰러지는 동료들을 내려다보며 밤반 동동 굴러대던 여려분의 자녀·동생의 몸짓이 기억나십니까?

그 곳에서 지켜보던 저도 떨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계획했던 우발적이건 폭력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송고한 이상과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시위는 있어서 안됩니다.

시위가 언제부터인가 자유를 넘어 방종의 수준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잠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준 탓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관공서를 파괴하는 구태의연한 불법 폭력 시위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립을 자초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연·전남경찰청 청문감사실 경위

[시설]

"임기 못마치는 첫 대통령..." 이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전효숙 현법재판소장 지명 철회 과정에서 느낀 무기력함을 토로하는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고성 언급이라 해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너무 경솔한 말이다.

사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연정 제안이 정치권의 반발로 좌절된데 이어 들어서는 각료급 인선과정에서 여당과 충돌이 잇따랐고, 개혁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특히 전 후보자 지명철회는 '최후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마저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스스로 한계를 느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주어진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대통령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무거운 자리다. 하여 정치권도 이제 '네 턱'만 하며 사건건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국정 혼란에는 여야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용갑 징계 유보' 속셈 드러낸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광주 해방구' 망언으로 광주시민의 명예를蝕손한 김용갑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강재섭 대표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한 만큼 김 의원의 동참 여부를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보'라고 했지만 징계는 사실상 물건간 것이다.

한나라당은 호남민심보다는 보수세력의 표가 내년 대선에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솔직히 인정하기 바란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유보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런 정치적 속셈을 감추고 호남주민들에게 '정직성' 운운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호남 껴안기'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징계 유보에서 '보수정당' '웰빙정당'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떨떠름하다. 일부 의원들도 당의 개혁성이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문' 한나라당의 행보를 주시한다.

無等鼓

장 입시를 치르고 있는 호세이(法政)대는 내년부터 3개 도시를 추가, 모두 9개 도시로 확대한다. 현재 6개 도시에서 출장입시를 실시하고 있는 주오(中央)대는 기준의 문학부 외에 경제·이공학부도 추가할 예정이다.

출장 입시는 원래 간사이(關西) 지방 대학들이 1980년대부터 본격 도입했으며, 수도권 대학들은 몇년전부터 출장

입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대학들은 높은 지명도로 그 동안 수험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수험생이 줄고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대학을 찾는 지방 학생들을 찾아가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 학생들에게 상경 부담을 덜어줘 우수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인데 지방 대학들로서는 수험생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메이지(明治)대는 내년 입시부터 산포로(札幌), 산다이(仙台) 등 4개 주요 지방 도시에서 처음으로 출장 입시를 치르기로 했다. 최대 규모의 출

장소를 현장 소재지 뿐 아니라 인접 현을 포함한 여러 도시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입학 자원이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들고 지방 출신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출장 입시' 도입이 남의 일만은 아님 듯 싶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00-222-811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안내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문화생활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총무부 2200-570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